

地域문화와 大學문화

李 栢 燕

(建國大 行政學科)

지역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 개발과 대학 문화 형성의 기본은 文化的 地域主義(cultural regionalism)에 그 기반을 두게 된다. 특히 지역 개발의 경제·사회·문화·정치적 생산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문화의 비증은 시대성과 역사성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중요시된다.

문화란 바로 인간들의 정신적 산물이며, 받자 취이고 삶의 맥박이라 한다면 문화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삶의 표현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중원 문화권의 중심지인 忠州를 중심으로 살펴 보자. 중원 문화는 다면적이며 뿌리가 깊고 방대한 양과 다양성을 지닌 문화이며 三國文化를 흡수·유지해 온 混合文化인 동시에 군사적인 각축장으로 이어온 지역 문화권 형성 지로서 이곳에 정규 대학이 설립된 것은 1980년이다. 특히 지역 개발과 대학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문화의 본산이 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을 갖기도 했다.

중원 문화권의 '핵 지역'인 이곳 충주시에는 그동안 충주공업전문대학을 주축으로 8개의 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여기에 수도권의 인구 분산 정책과 지방 문화 창달을 위한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4년제 대학이 존재하게 되었다. 초창

기 4년제 대학의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욕은 대단했다.

첫째는 중원 문화권 지역에 명문 대학이 존재하게 된다는 자부심이요, 둘째는 내 자녀를 멀리 서울에 보내지 않아도 가까이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안도감이요, 셋째는 30년 역사를 가진 도시에 4년제 종합대학을 유치했다는 긍지요, 넷째는 대학이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하면서 문화 창조의 역군이 될 것이라는 기대요, 다섯째는 대학을 중심으로 경제적 활성화를 기대하고 고급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많은 산업이 활성화되어 경제적 수준이 크게 향상되리라는 기대요, 여섯째는 대학에 근무하는 많은 석학들이 이 지역의 보배가 될 것이며, 그들과 이 지역에서 호흡을 함께 하는데 대한 자부심이요, 일곱째는 맹모 삼천을 거울 삼아서 후손들에게 교육 문화 도시로 발전시킬 꿈의 고향이 되리라는 기대요, 여덟째는 지역 문화 창달에 크게 진일보하여 문화 창조의 시민이 됨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요, 아홉째는 知的인 地域文化 수준 향상과 아울러 국가와 민족의 선봉이 될 젊은 대학생들의 기개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호흡하고 생활할 수 있

우리라는 큰 기대감에 휩싸이게 되리라는 점이 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대감이 하루 아침에 만족될 수는 없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지역 주민의 건의 사항 중에서 종합대학 유치를 건의한 것은 현존 종합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 중의 하나이었다. 둘째는 대학 유치를 그렇게도 고대하던 지역 주민이 대학에 필요한 교지 문제나 대학 병원 용지 구입에 어려움을 겪게 한 것도 학교와 지역 사회의 측면에서 볼 때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었다. 셋째로는 지역 문화 행사의 꽃이며, 전체 시민의 축제 행사인 '우륵문화제' 행사에 보다 많은 실질적인 대학의 협력을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체계화시켜 볼 때 지역 문화와 대학 문화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6개의 모형이 성립하게 된다.

모형의 대부분류는 문화의 양(VC)과 문화의 질(QC)로 구분되며, 문화의 양은 지역 문화(regional culture: RC)와 대학 문화(university culture: UC) 사이에 세 가지 모형으로, 문화의 질 또한 세 가지 모형으로 되어 모두 6개가 된다.

첫째는 문화의 양(VC)이 $RC > UC$ 로 지역 문화가 대학 문화보다 클 때의 모형이 된다. 물론 이때의 변수로는 지역 주민당 대학생 수로 비교해도 좋고, 기존 도시의 역사와 대학교의 역사로 비교해도 좋다. 이런 경우 주민들이 대학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아서 그저 우리 지역에 대학이 하나 있구나 하는 인식을 할 정도이며, 주민들이 보기에는 대학이 대화의 상대라기보다는 성장 과정을 주시해야 하는 단계이다. 다시 말해서 관찰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가까이 할 수 있는지 그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는 단계인 것이다.

물론 대학은 지역연구소와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역 연구, 지역 조사, 지역 사회 교육에 대한 연구 검토와 그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

저 권위 의식 속에서 지역을 무시하면 할수록 지역과의 간격이 크게 된다. 그것은 지역과 인간이 있기에 대학이 존재하며, 대학이 지역에 그만큼의 기여를 해야만 되기 때문이다. 지역과 대학과는 상호 유대가 깊어져야지 물과 기름이 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초창기의 대학 문화는 그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역 발전에 크게 동참해야만 한다.

특히 그 지역의 문화량이 클수록 대학의 역할은 정비례하게 된다. 어느 지역이든 지역 문화가 모두 있지만, 그 중에서도 문화권으로 존재하는 특수 지역일 때는 더더욱 대학 문화의 역할이 커야 한다. 예를 들면 신라문화권, 백제문화권, 가야문화권, 제주문화권, 증원문화권과 같은 5대 문화권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는 대학 문화는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더 많은 양적인 문화 활동이 요청되고 있다.

물론 대학 문화는 지역 문화 행사에 흡수되어서 그 행사의 일환으로 존재해야 하며 그 기준은 10년 이내이어야 할 것이다. 그 기준 연도가 짧을수록 대학 문화는 양적 팽창과 더불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번째는 문화의 양(VC)이 $RC = VC$ 의 형태인 모형이다. 이때에는 지역과 대학이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의 변수로는 지역 주민 전체의 학력이 그 지역 대학 졸업생의 수준과 동등할 때를 의미하게 된다. 즉 한 지역의 대졸 학력의 주민이 5,000명일 때 그 절반 이상이 그 지역 대학 졸업생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지역 주민의 수와 대학생 수의 비로도 표현이 된다. 이런 경우는 전국 평균 인구와 그 지역 평균 인구에 대한 대학생 수로도 비교가 가능하며 지역 기관의 인구 계층에 대한 비중 비교도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 문화제 행사 예산 및 규모와 대학 축제 행사의 예산 및 규모의 크기가 같을 경우이며, 그 참석 현황의 숫자로도 비교할 수 있

다. 물론 외형상의 양적 비교에서 지역 문화와 대학 문화가 동등선이 되며, 한 지역에 대학이 설립된 지 10~20 년경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의 위치는 그 지역의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며 보다 많은 면적을 갖출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여기 저기에 분산된 대학 건물과 실습장을 갖게 되기도 한다. 한편 지역 문화와 연관된 지역 경제 성장도 어느 정도 상승되는가, 아니면 정체인가, 아니면 퇴보인가에 따라서 대학 문화와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되는 주요 변수가 된다. 물론 지역 경제 분석이 여의치 못할 때 인구의 정체나, 증가나, 감소나 하는 문제와 더 나아가서 전국 인구 증가와 대비해서 평가되며, 인구 계층의 비교도 또한 좋은 변수가 된다. 특히 유입 인구의 비중은 지역 발전과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여기에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정부의 예산과 대학 예산과의 비중도 그 좋은 분석 자료라고 하겠다.

세번째는 문화의 양(VC)이 $RC < UC$ 형태의 모형이다. 이때에는 대학 문화의 양이 지역 문화의 양보다 큰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의 비교 가능치는 교지일 수도 있고, 교육 전반의 제정이나 학생 수일 수도 있다. 이때에는 대학 문화가 지역 문화의 기수 역할을 하여야만 한다. 물론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대학 도시가 됨은 말할 것도 없다. 이때의 대학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자연히 전국적이며 국제적인 분위기로 발전하게 되며, 국제적인 명성도 가질 수 있게 되어 그 지역은 대학 문화의 숨소리를 경청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학 축제 행사가 바로 지역 전체의 축제 행사가 된다. 그래서 축제 및 대학의 문화가 지역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양적 수준이 되며, 대학에서 발간되는 신문이나 유인물이나 대학의 강의 시간표가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배포되고 대학의 학사 일정이 곧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다.

네번째는 문화의 질(QC)이 $RC > UC$ 형태의 모형이다. 이때에는 대학 문화의 질이 지역 문화의 질보다 크게 모자라거나 적은 경우를 의미한다. 즉 대학 문화가 지역 문화를 걸뚫고 있거나 지역 문화를 지배하려는 모형이다. “지역 문화 그까짓 게 문제될 것이 무엇인가?”, “대학 문화만이 최상이니까 언젠가는 따라 오겠지!” 하는 경우이다. 설사 지역 문화의 존재가 미미하다고 해도 대학 문화뿐만 아니라 異質文化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 반대로 대학 문화가 또 다른 문화로 성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거대한 지역 문화가 배타적으로 냉대해서도 안 될 일이다. 지역 문화에 대한 대응력이 약한 대학 문화는 여러 측면에서 지역 문화의 문이 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 지역에 두 가지 문화가 존재한 채로 경쟁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현상은 못된다. 지역 문화가 제 아무리 보수적이라 해도 시대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와 합리화의 사고 방식 속에 홀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홀로서기’ 문화는 점차 인간 생활에서 역경을 겪기 마련인 것이다. 이럴 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연성을 지니게 된다. 즉 지역 문화는 어디까지나 지역 문화요, 대학 문화는 어디까지나 대학 문화라고 팽팽하게 맞서는 물과 기름과 같은 분위기의 모형인 것이다. 이럴 때 대학 문화는 잘못하면 지역에서의 지탄 대상이 되고 지역민의 자녀는 지역 내에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뿐더러 지역 발전에 역기능을 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너희 지역에 대학이 있는데 왜 멀리 있는 대학에 보내니?”라고 물으면 “에, 그게 대학이니! 대합도 대학다워야지?”하고 반문하는 관계가 성립되는 모형이 된다. 이 모형에서는 지역 내에 대학이 있다고는 하지만, 못마땅해 하거나 대학과 대학생에 대한 나쁜 인상을 분출시키게 된다.

대학 문화를 성립시키는 큰 행사로는 입학 행

사, 졸업 행사, 학사 운영, 축제와 학생 활동, 교직원 활동으로 구분되는데 대학의 행사 자체가 지역 문화에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대학 입학울 전후한 행사는 곧바로 지역 내에서 모범적으로 개최되고 지역과 직결되어야 한다. 입학 시험을 서울에서 치루고, 면접은 지방에서 실시하는 등 이원적인 입학 시험은 지역 사회와 지역 대학 관계가 마치 물과 기름처럼 될 수 있다. 대학 문화는 처음(입학)에서 끝(졸업)까지 해당 지역에서 시작해서 끝나야지, 시작과 끝은 다른 지역에서 행사하고 중간 부분만 실행하게 되면, 지역 문화라는 차원에서 볼 때 지역 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한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섯번째는 문화의 질(QC)에서 UC와 RC가 서로 겹쳐지는 모형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모형인 것이다. 이때 UC와 RC가 겹쳐지는 부분을 UR이라고 한다면, UR의 크기에 따라서 인정의 정도가 크거나 작게 된다. 예를 들면 대학 문화 속에 가족이 다수 참여하는 것이다. 자녀는 대학생이며, 부모는 대학원생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하거나 할 때를 말한다. 이때 특히 조심해야 할 일은 자녀의 대학교육은 정상인데 부모의 교육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다면, 자녀의 대학교육마저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전공의 비중을 높여 나가야만 한다. 예를 들면 행정학 석사과정에 무역학 교수가 학과장을 한다거나 경영학 석사과정에 경제학 교수가 학과장을 하는 등의 기초 상식 이하의 학사 운영은 대학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대학인답지 못한 비지성적이 될 수도 있다. 또 교수들 간에 전공 과목을 놓고 다툼을 하거나 본인 전공 과목이나 강의를 해 본 적도 없는 교수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를 본 지역민은 학사 운영 전반을 의아스럽게 생각

하며 부정적인 태도로 대학 자체를 멸시하게 된다. 즉 위와 같은 예는 국내에서는 없겠지만 있어서도 안 된다. 대학 사회는 어디까지나 뚝뚝한 大路이며 正道를 걸어가야 한다. 그럴수록 UR의 범위는 자연 확대될 것이고 지역 문화와 대학 문화의 겹목이 쉬워지리라곤 본다.

UR의 측정은 입학생의 분포와 그 비로 측정하게 되는데, 그 지역 내의 진학자 수와 그 지역 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로 측정된다. 특히 진학자가 그 지역의 대학에 해당 학과가 없는 경우는 함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면 된다. 여기에 나타난 비중이 바로 UR의 인정 빈도가 된다. 다시 말해서 지역 대학에 해당 학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학 학과로 원정가는 일이 많다면, 그 지역 대학의 해당 학과는 무엇인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는 셈이다. 그 빈도가 0에 가까울수록 문제는 심각하게 된다.

여섯번째는 문화의 질(QC)이 UC와 RC가 혼합 공존하는 모형이다. 대학 문화와 지역 문화가 혼연일체가 될 경우 대학 문화 행사에 전 지역 주민이 자원하여 참여하며, 지역 문화 행사에 전 대학인이 참여해서 지역 문화와 대학 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지역 문화를 창조해 가는 가장 이상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문화의 질에 의해서 조정되며, 이것은 대도시보다 중소 도시일수록 눈에 띄게 변화되고 있으며, 대도시일수록 또는 동일 지역 내에 경쟁 대학이 많을수록 성숙한 지역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게 된다.

대학 문화는 우선 지역 문화에 대한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서 순응과 대응과 창조의 단계를 실현하는 선두 주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질 높은 삶을 지향하는 길이며, 후세에 남겨 줄 수 있는 문화 유산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모든 대학인이 했어야 했고, 하고 있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인 것이다. *